



4월 27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아내 사래는 "달그락달그락!" 그릇을 챙겨요. 조카 롯은 "매에!" 양을 몰아요. "자, 가나안으로 떠나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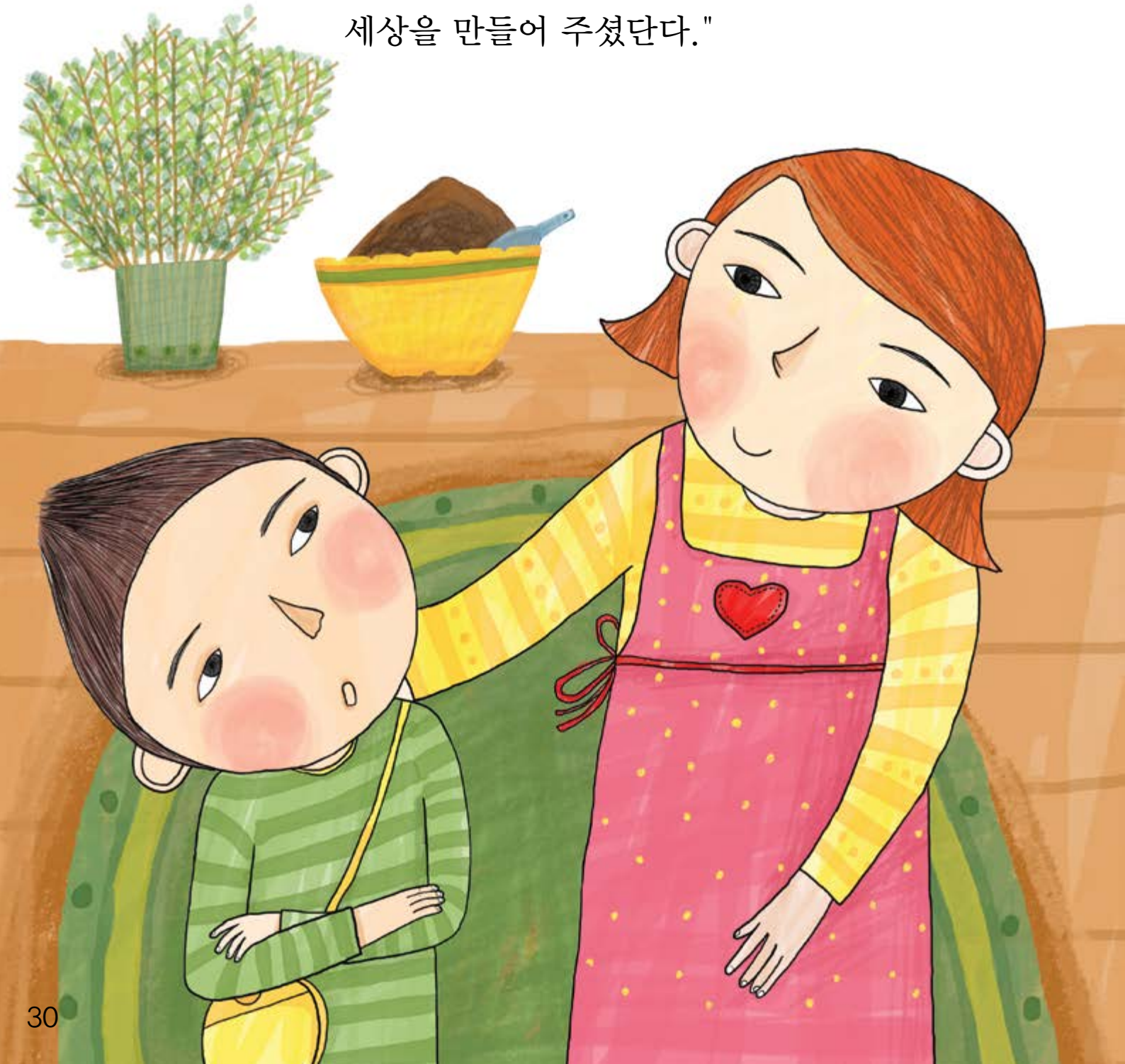
생각하는 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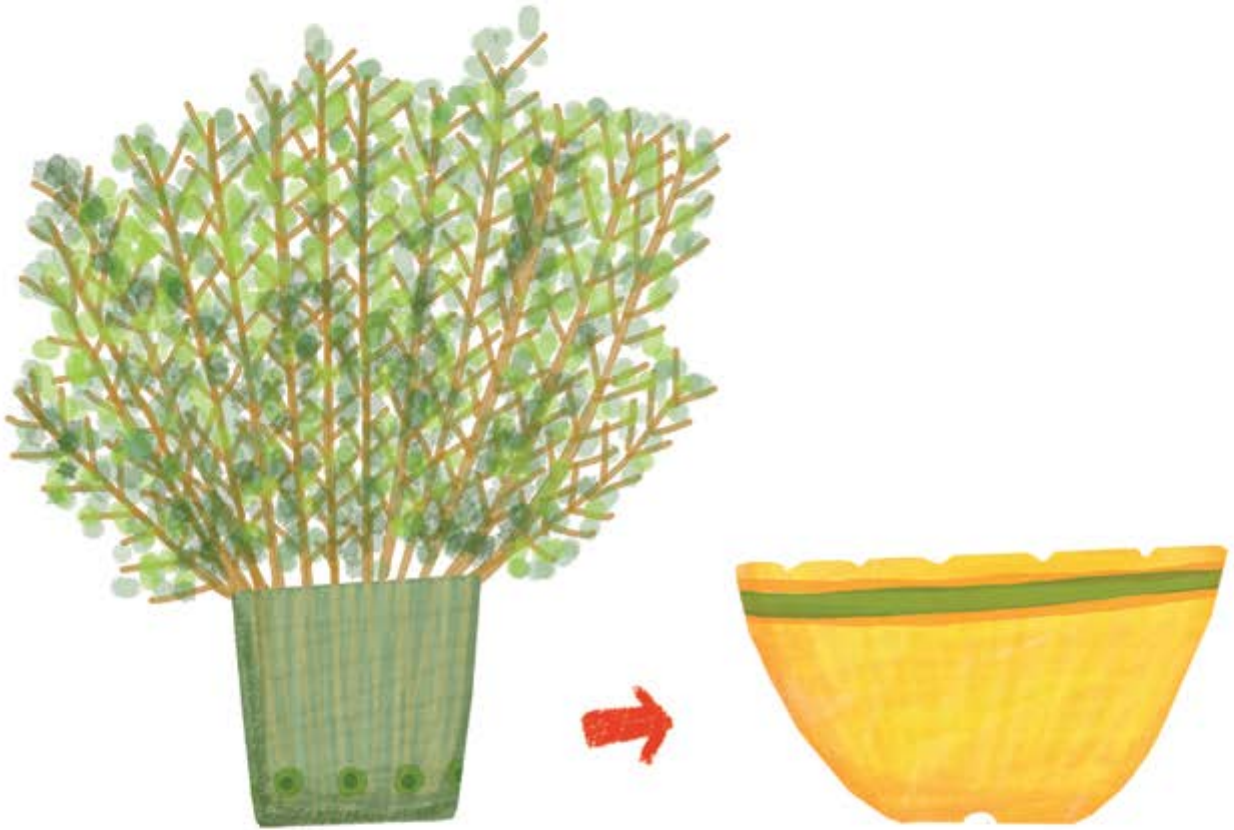
"남우야, 화분을 갈아주자." "엄마, 화분을 왜 갈아줘요?"

"응, 나무가 많이 자라서 더 큰 화분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나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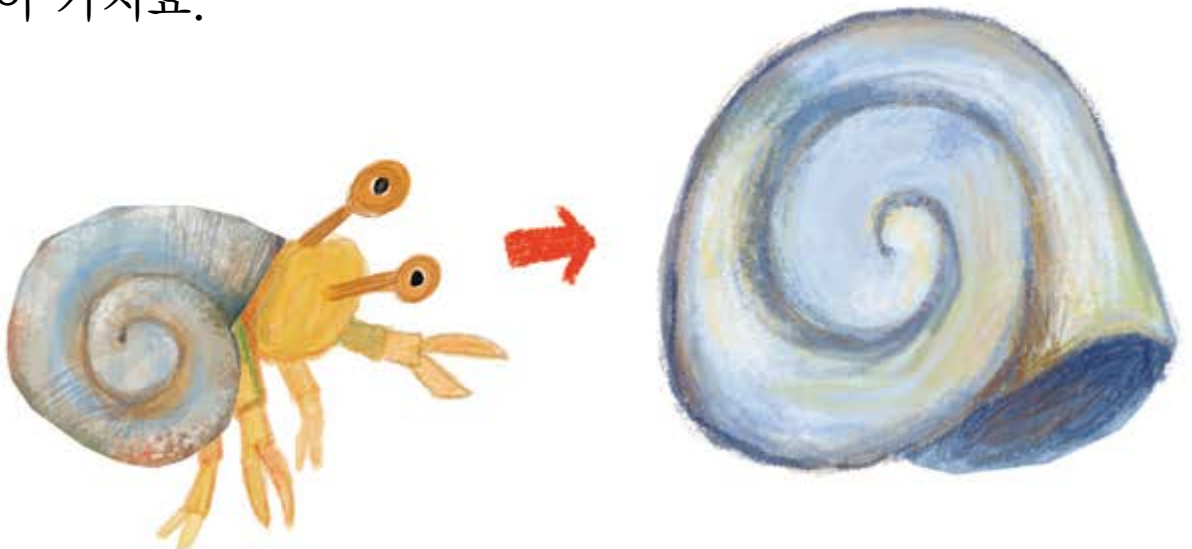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도 살기에 알맞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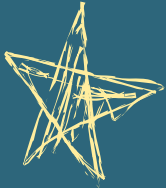
나무는 자라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해요.



움직일 수 있는 소라게는 몸이 커지면, 스스로 다른 집을 찾아 가지요.



즐거은 활동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밤하늘에 별을 많이 그려 보아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좃아 갔고
창세기 12장 4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